

세계의 민항기 현황

세계의 민항기 대수가 수년간의 침체끝에 다시 현저히 증가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저장상태에 있는 상당수의 민항기는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다.

서방제 민항기 증가

민간 항공우주산업의 미래를 전망해 볼 때 세계의 항공사들은 승객의 증가와 좌석이용률(load factor)의 착실한 상승을 보고하고 있고 한편 항공기 제작사들은 3년 이래 처음으로 생산증가 준비를 하고 있는 등 지난 12개월간 보다 밝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낙관적인 분위기는 플라이트 그룹이 매입한 항공데이터사인 AvSoft사가 처음으로 작성한 금년도 센서스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수집된 데이터에 의하면 전세계의 민항기 대수는 24,560대로 집계되고 있다.

제작사별 세계 항공기 대수

순위	제작사	대수(대)	비율(%)
1	보잉	10,554	48.8
2	에이버스	3,320	15.4
3	봄바디어	2,069	9.6
4	엠브레어	1,143	5.3
5	BAE 시스템	746	3.5
6	포커	744	3.4
7	ATR	578	2.7
8	레이시온	445	2.1
9	페어차일드	417	1.9
9	Saab	417	1.9
	기타 제작사	1,178	5.4
	합계	21,611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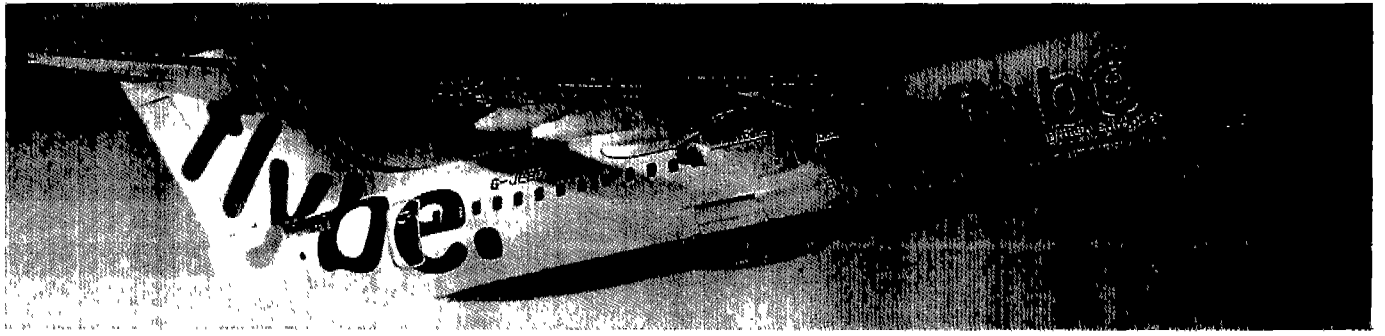
X 항공사에서 운항하는 서방제 제트 및 터보프롭 항공기의 데이터임.

X 맥도널 더글라스사의 2,189대 포함

몇 년간의 침체끝에 서방측 업체에서 제작한 민항기 대수는 지난 12개월 동안 상당히 증가해 6%가 신장된 21,600대에 달했다. 2001년 9월 11일 미국에 대한 테러사건 이전까지 서방제 민항기의 연평균 증가율은 약 5%였다. 그러나 러시아/독립국가연합(CIS)계 민항기 대수는 계속 감소해 지난 12개월간 5%의 감소세를 보였으며 총대수는 3,000대에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작년에 보잉 737-300/400/500 등 전통형 737(737 Classic)기로부터 주도권을 빼앗은 에어버스 A320 계열기는 지난 12개월간 우세를 확 대해 왔으며 전체 대수는 2,000대를 훨씬 초과했다. 한편 전통형 737기는 대수가 약간 감소했으며 차세대형 737기(737-600부터 737-900까지)는 가장 큰 증가세를 계속 유지해 작년도에 15%나 증가했다. 전체적으로 737 쌍발기는 초기형 737-100/200기와 전통형 737기 및 차세대 737기 등 세 가지 계열기 전체를 합칠 경우 그 전체대수는 처음으로 4,000대를 초과해 4,023대에 달했다.

보잉 757 민항기는 비록 인도가 곧 끝날 예정이고 가장 오래된 항공기 기령이 20년을 넘고 있지만 최근에 1,000대 제작의 기록을 수립했다. 총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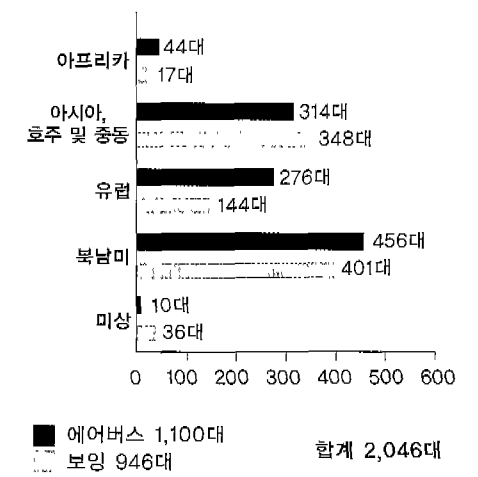
▲ 유럽의 플라이비 항공사는 BAe 146 리저널 제트 18대를 운항중인 항공사이며 BAe 146-100기 2대, BAe 146-200기 7대 및 BAe 146-300기 9대를 운항하고 있다.

산대수면에서 금년에 상위 10위권에 들어선 보잉 777 민항기는 480대가 운항중이며 맥도널 더글라스 DC-9 민항기를 대체해 상위 10위에 들어갔다. 예상하던 대로 보잉 727기는 기체의 노후와 빈약한 경제성으로 인해 그 대수가 계속 감소되고 있으며 퇴역을 촉진시키고 있다. 727기는 작년에 9%가 감소되어 860대로 줄었지만 금년도 감소대수는 작년보다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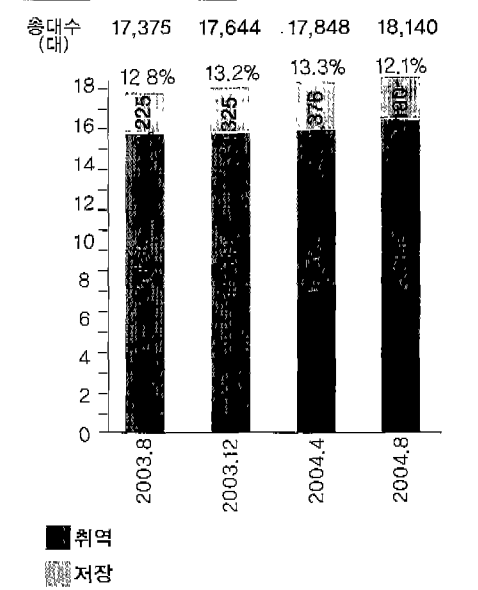
리저널기(지역여객기) 분야에서 봄바디어 CRJ 100/200 지역여객기는 계속 시장을 주도하고 있으며 만약 보다 큰 CRJ 700/900기의 대수가 포함될 경우 그 대수는 1,000대에 육박하게 된다. 작년에 브라질 엠브레어사의 ERJ 145 리저널 제트에 의해 제2위의 자리에서 밀려난 유럽의 ATR 42/72 리저널기는 봄바디어사의 Dash 8/Q 시리즈 리저널기의 대수증가로 인해 다시 그 아래로 밀려났다. 봄바디어 Dash 8 리저널기의 대수는 지난 12개월간에 거의 5%나 증가했으며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70인승 Dash 8/Q400 모델의 새로운 인도로 인한 것이었다.

러시아/CIS제의 상위 10위권 항공기 대수의 세부내역은 AvSoft사가 처음으로 수집한 데이터이다. 러시아 투폴레프사제 Tu-154 민항기는 비록 작년 이래 그 대수가 10%나 감소했지만 가장 인기있는 러시아제 여객기의 자리를 지키고 있다. 야코블레프사의 Yak-40 3발 리저널 제트 대수 또한 감소해 보유대수가 12%나 줄었으며 보유대수의 순위가 2위에서 3위로 한 등급 떨어졌다.

에어버스 및 보잉사제 민항기 지역별 수주잔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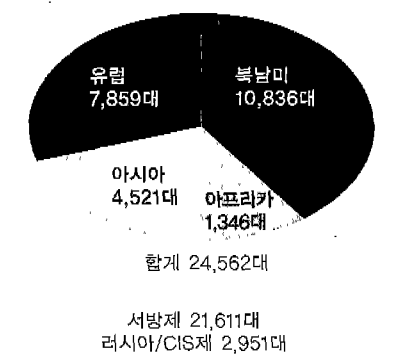


지난 12개월간 제트 민항기 저장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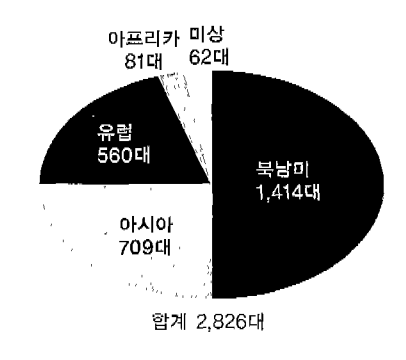
※ 서방제 제트 민항기의 데이터이며 군용기로서 사용중인 것은 제외됨.
 ※ 퍼센티지는 총대수에 대한 저장기의 비율임.

세계 민항기의 지역별 분포대수



※ 서방 및 러시아/CIS제 제트 및 터보프롭기의 데이터임.

민항기 수주잔량



※ 항공사들이 발주한 서방제 제트 민항기 및 터보프롭 민항기의 대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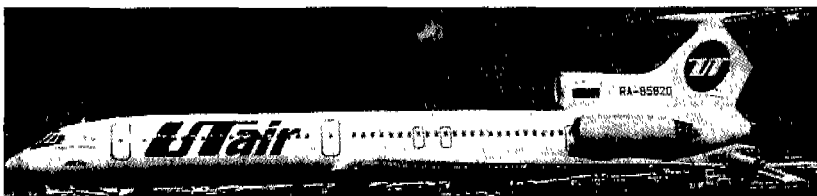
▲▲ 러시아의 아르키아 항공사는 보잉 757-300기 2대와 757-100기 1대 등을 러시아제 항공기와 함께 운항하고 있다.
▲ 로간에어의 Saab 340B는 영국항공에 독점 운항되고 있다.

저장 민항기 감소

러시아/CIS제 항공기를 포함한 금년도 민항기 대수분포는 미국제 민항기가 항공기 운항기반을 계속 지배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서방제 민항기의 수주잔량(order backlog)은 작년 이래 약간 감소되고 있다. 비록 북미/남미지역 항공사들의 발주물량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작년도 총수주잔량은 유럽지역과 함께 감소되고 있으며 그 감소분을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및 중동지역 항공사들이 보충하고 있다. 항공기 수주잔량을 보면 에어버스가 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중동지역을 제외하고는 전지역에서 라이벌인 보잉사를 앞지르고 있다.

우려의 대상이 되고 있는 민항기의 저장현황을 보면 운항중단 상태에 있는 서방제 제트 민항기가 여전히 2,000대를 넘고 있다. 하지만 현역 민항기로 운항되고 있는 항공기 대수는 지난 12개월간 800대가 증가해 거의 16,000대로 늘어났으며 저장된 민항기 대수는 약간 감소했다. 현역기로 취항중인 운항기 대수는 2001년 9월 11일 테러 사건의 여파로 한때 14,700대까지 감소했었다. 실제로 작년도 센서스 이래 새로운 서방제 제트 민항기와 터보프롭기는 약 1,100대가 새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같은 기간중에 500대 이상의 노후항공기가 영원히 은퇴했다. 여기에는 항공사로 분류되지 않은 기타 운항사의 항공기는 포함되지 않고 있다.

취역하고 있는 민항기의 제작사별 순위에는 예상하던 대로 보잉사제 항공기가 여전히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비율면에서 보잉기는 라이벌인 에어버스기에 비해 감소하고 있으며 리저널기는 봄바디어사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



▲ UT에어는 투폴레프 Tu-154B 3대와 Tu-154M 9대를 포함하여 15대의 Tu-154기를 보유하고 있다.

상위 10위권 민항기 현황

순위	제작사 기종	대수(대)	2002년 이래 변동률(%)
1(1)	에어버스 A320 계열기	2,163	+12.7
2(2)	보잉 737-300/400/500	1,892	-0.9
3(3)	보잉 737-600/700/800/900	1,444	+15.4
4(4)	보잉 MD-80	1,092	+0.6
5(5)	보잉 747	1,030	-0.5
6(6)	보잉 757	1,004	+2.7
7(7)	보잉 767	858	+0.2
8(8)	보잉 727	756	-8.8
9(9)	보잉 737-100/200	687	-2.6
10(11)	보잉 777	480	+9.1

※ 100인승 이상 서방제 제트 민항기의 데이터임
※ () 내의 순위는 작년도 순위임

상위 10위권 러시아 및 CIS제 민항기

순위	제작사 기종	대수(대)	2002년 이래 변동률(%)
1(1)	투폴레프 Tu-154	484	-9.0
2(3)	안토노프 An-24	435	-4.6
3(2)	야코블레프 Yak-40	421	-11.7
4(5)	투폴레프 Tu-134	312	-3.7
5(4)	일류신 IL-76	304	-16.3
6(6)	안토노프 An-26	248	+3.8
7(7)	안토노프 An-12	181	-0.5
8(8)	야코블레프 Yak-42	124	+2.5
9(9)	일류신 IL-62	96	-4.0
10(10)	안토노프 An-28	80	-9.1

※ () 내의 순위는 작년도 순위임

상위 10위권 리저널기

순위	제작사 기종	대수(대)	2002년 이래 변동률(%)
1(1)	봄바디어 CRJ 100/200	905	+13.7
2(2)	엠브러어 ERJ 135/140/145	745	+11.7
3(4)	봄바디어 Dash 8/Q 계열기	582	+4.9
4(3)	ATR 42/72	578	+0.9
5(5)	레이시온 비치 1900	455	-1.1
6(6)	제어차일드 매트르/말린	407	-4.0
7(7)	Saab 340	370	-1.1
8(8)	드 하빌랜드 트윈 오퍼	356	-2.5
9(9)	Let L-410/420	338	-1.5
10(10)	BAe 146/아브로 RJ	335	+0.9

※ 서방제 리저널 제트 및 리저널 터보프롭기의 데이터임
※ () 내의 순위는 작년도 순위임